



중국의 외국상회: 화동지역의 한국상회, 대만상회, 미국상 회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⑥ - 중국

정선욱 (미국 코넬대학교 박사과정 (노사관계))
정유선 (대만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연구원, 정치학박사)

■ 머리말

외국자본투자(FDI)는 개혁개방기 중국경제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¹⁾ 예를 들면, 개혁개방 초기 홍콩, 대만, 해외화교자본의 활발한 광둥성 투자나 한국, 일본 기업들의 산둥성 및 동북부 지역 투자는 이 지역들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외자중심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중국 내 외자기업 수의 증가를 수반했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와 외자기업 간에 상호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제도가 매우 상이하고 불확실성이 큰 중국의 사업환경하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중간매개체를 필요로 하였고, 중국(지방) 정부는 관리 및 통제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사업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였다.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1989년 외국상회관리조례(外國商會管理條例)를 제정 발표, 비영리조직으로서 '1국 1회'의 원칙하에 각국의 외자기업협회를 허용하고 장려하였다. 현재 중국내 주요 산업도시, 개발구에는 각국 상회의 지방분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사와 지역정부 및 사회와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Gallagher, Mary(2005), Contagious Capitalism: and the Politics of Labor in China. Princeton University Press; Huang Yasheng(2008),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th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이런 현실을 고려, 이 글에서는 그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상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상회 활동의 가시성과 중요성 그리고 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역으로는 '화동지역'(상하이와 그 인근지역), 대상으로는 '한국', '대만', '미국'상회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²⁾

■ 지역적 특징과 각 상회의 현황

현재 화동지역에는 한국상회, 미국상회, 대만상회, 캐나다상회, EU상회³⁾ 등 각국의 지역상회가 존재한다. 화동지역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각국의 메이저 지역상회로 위치하고 있다.

한국상회의 경우, 화동지역 18개 지역에 한인상회의 지역상회가 조직되어 있다.⁴⁾ 이 중 상하이상회는 1993년 설립되어 현재 19대 집행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수가 증가해 현재 회원수가 440여개 사에 달한다. 현재 상하이지역에 활동하는 크고작은 한국업체의 총수가 3,000여개사에 달하는 것을 고려, 상하이상회는 미가입 한국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상회 화동본부(AMCHAM Shanghai, 이후 암참 상하이로 표기)는 역사 및 규모 면에서 방대하다. 1,600여개 기업회원을 포함해 현재 회원수가 3,700명에 이른다. 이는 아시아지역 최

- 2) 이 글에서 참조한 자료는 각각 각 상회 중앙 홈페이지 및 화동지역 홈페이지, 지역 신문자료, 그리고 각 상회가 발행한 오프라인 발간물을 토대로 작성했다. 한국상회 관련 자료는 코참상하이 www.kochamsh.com, 상하이총영사관, 화동지역 한인언론 및 지역언론 참조. 미국상회 자료는 암참상하이 <http://www.amcham-shanghai.org> 및 기타 지역 언론자료 등을 참조. EU상회 자료는 <http://www.eurochamber.com.cn> 및 지역언론 자료 참조. 대만 및 홍콩상회는 <http://shtx.site.hongxi.com>, <http://www.hkccc.cn> 및 기타 언론 자료 참조.
- 3) 유럽 각국은 EU상회에 속하면서 동시에 각 나라의 독립된 상회를 가진 경우도 많다. 가령, 영국상회, 독일상회, 이탈리아 상회 등이 그렇다.
- 4) 18개 지역은 상하이, 쑤저우, 난징, 우시, 장저우, 장가항, 연운항, 진장, 양주, 옌청, 남통, 이우, 항저우, 승주, 닝보, 자싱, 윈저우, 허페이이다.

대의 미국기업협의회이고, 중국 내에서도 최대의 외국상회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암참 상하이(上海)는 1915년 설립되었다가 중간에 정치적 이유로 1938년의 휴식기를 맞이한 뒤 1987년 부활하였다.

대만상회는 양안관계(중국-대만 관계)가 개선되면서 1990년 들어 북경, 선전을 필두로 해서 중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기 시작되었고, 상하이에는 1994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126개사의 기업회원과 21명의 개인회원으로 출범하였고, 현재 1,200여개 회원사가 소속되어 있다. 현재 화동지역 곳곳, 즉 난징, 쑤저우, 쿤산, 우시 등지에 대만상회 지역조직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대만상회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외국상회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 관계(양안관계)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지위이다. 중국 정부는 1994년 반포된 대만동포투자보호법(台灣同胞投資法)에서 대만기업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기로 명시하고, 각 지역에 대만상회의 설립을 허용하고 장려했다. 각 지역에 설치된 대만사무실(台灣事務辦公室)이 대만상회를 관리하는 공식적인 채널이다.⁵⁾

또 하나는 상하이 인근의 중소도시에 대한 대만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및 그로 인한 상회 발달이다. 그 좋은 예가 쿤산이다. 엄밀히 말하면, 행정편제상 쿤산은 쑤저우시의 하위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상회 설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만기업들의 쿤산 진출이 급증해서 쑤저우지역의 대만기업 총수를 초월하게 되자 1998년 독자적으로 쿤산지역 대만상회를 설립하게 된다.⁶⁾

홍콩상회는 1996년 상하이 지역조직을 설립했고 현재 회원수가 700여개 사에 이른다. 홍콩상회가 여타 국가의 투자 패턴과 다른 모습은 주력 투자지역이 광둥성이라는 점이다. 광둥지역에서는 개별 지역마다 홍콩상회가 조직되어 있을 만큼 그 지역 사회에서 큰 존재감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화동지역 활동은 그만큼 활발하지 않다.

유럽연합(EU)상회는 2000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1,500여개 회원사가 있고 중국 전역에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EU상회의 특징은, 개별 주요 회원국별로(가령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5) 다른 외국상회는 대외경제무역부(對外經濟貿易部)를 통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6) 1992년 국무원 허가로 제정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인 쿤산에는 유명 대만기업인 폭스콘사 등이 있으며, 쿤산지역 기계·전자 분야에서 대만기업은 총생산의 70%를 점하고 있다. 현재 쿤산지역의 대만기업수는 1,200여개 사이고 쑤저우지역은 600여개 사이다.

등) 중국에 별도의 상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복 회원이 많다는 것이다.

■ 주요 활동사항

주요 활동부분에서는 한국, 대만, 미국상회 등 외국상회의 활동 중 두 가지 공통사항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첫째는 대외교류이고, 둘째는 회원사 교육 및 상담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공통사항 이외에 상하이 한국상회의 주요 활동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대외교류

각국 상회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대외교류이다. 여기서 대외교류는 대(對)정부관계, 지역사회관계, 기타 대(對)외부조직(가령, 외국상회) 관계이다. 이를 통해 각국 상회조직은 회원사의 공통 관심사를 표출시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하이한국상회는 12개 분과 조직을 통해 정기적으로(가령, 월별모임)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대외교류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지난 4월19일에는 상하이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홍치아오쩐(虹橋鎮) 정부의 주요 관리들, 쩐장, 공상국 대표, 세무국 대표, 재정관리세무소 대표, 경제발전사무실 대표 등과 회의를 가졌다. 한국상회는 세무, 공상, 소방, 환경보호 등 기업의 민감 이슈에 대해 한국상회에 정책과 규정 변화를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쩐(鎮) 정부 측 인사들도 규정 변화에 대해 적극 홍보 및 교육할 것을 약속하였다. 비슷한 이유로 2010년 8월에는 출입국관리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무지 및 오해로 인해 종종 발생했던 한인 및 한국기업의 출입국 관련 문제들에 관해 이해를 구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요청하였다.

암참 상하이는 정기적으로 중국 공무원 포럼(Government Speakers' Forum)을 통해 중요 이슈에 대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포럼을 예로 들면, 여름철 전기부족 사태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초청해 지역 전기공급 현황과 회원사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상하

이 도시개발계획이 회원사의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요청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도시개발국 관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밖에도 매년 9월에는 상하이 시장과 60여 주요 공무원을 초청해 연례 만찬회(Annual Government Appreciation Dinner)를 갖는다. 이를 통해 개별 회원사들이 상하이 공무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 및 홍콩상회는 언어 및 문화 장벽이 덜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촉 기회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각 지역상회에도 여러 분과 조직이 있는데 그 중 대형활동부(大型活動部), 교류 접대부(交流接待部), 공공관계부(公共關係部)와 같은 조직들을 통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대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만상회의 경우, 활동하는 각 지역 정부 관련부처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는 것은 물론, 중국 각 지역의 대만상회 대표들과 중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 간의 연례 좌담회(台商座談會)를 매년 베이징에서 갖는다. 가령, <蘇州台商> 2008년 9월호에 따르면, 동관 대만상회 대표가 인건비, 원재료값, 토지대 상승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중소대만업체들의 불만을 왕치산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접적인 교류 이외에 미국상회와 EU상회는 매년 백서를 발간해 해당 연도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에 대해 엄밀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중국 정부가 신노동법 제정 전에 의견수렴 단계를 거칠 때 이 두 상회는 신노동법 제정의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최근에는 환경법 이슈를 놓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두 상회가 백서에서 늘 강조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중국의 정책과 규제가 모호하고(ambiguous) 일률적으로 집행(not uniformly enforced)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만하고 눈에 잘 띄는 외국기업이 종종 새로운 규제와 법률의 주요 타깃이 되어 왔으며, 차별적 법 집행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상회간 교류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단위별로 친목 수준에서 시작한 상회간 교류가 공동발전이라는 대의를 목표로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쑤저우 대만상회의 경우 독자적으로 2002년부터 한국, 태국 등 외국상회와의 교류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상하이 한국상회는 올해 3,4월 상호 답방 형식으로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쓰촨 출신 기업들의 모임인 쓰촨상회와 교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상하이지역에서의 양 상회의 공동 이해관계 도모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쓰촨성 진출에 관한 주제도 다뤄졌다. 현재 상하이 한국상회는 미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상회 등과 교류를 갖고 있으며, 중국 전역 46개 한국상회와도 정기적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된 지역사회 밀착도 주목할 만하다. 그 중 가장 활발한 암참 상하이 예를 들면, 미국상회는 2005년 시작한 지역 자선활동을 연례행사에서 연중 2,000시간 자원활동으로 확대한 바 있다. 2005년에는 골프행사를 통해 미화 1만2천여 달러를 중국 환경 NGO에게 기부하였다. 한편, 매년 10월 기업의 사회적 활동(CSR) 컨퍼런스를 통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회원사들이 지역사회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내 외국상회들은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투자하고 공헌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원사 교육 및 상담

최근 중국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상회의 교육 및 상담 기능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2000년대 들어 환경보호, 인사노무, 출입국, 관세 등의 이슈에서 관련 정책과 법규가 전체적인 틀에서 보다 엄격해지고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중앙 정책이 각 지방에서는 지방 사정에 맞춰 다르게 적용되고 이 또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외국계 소규모 기업들은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기업의 큰 걱정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노동중재, 잔업시간, 사회보험 구매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크고 시시각각 상이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회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회원사 교육 및 상담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한국상회는 2006년 인사노무연구회를 발족해 거의 매달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상회 역시 평균 일주일에 한번꼴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가령, 최근 개최된 생산성(productivity) 세미나는 중국의 인건비 증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HR, 공장이전, 자동화 등에서 대안을 모색한 회원사를 연사로 초청해 성공 사례를 경청하였다. 대만상회는 화동지역 각 지역상회별로 법률자문부(法律資訊部), 교육훈련부(教育訓練部) 등의 내부 조직을 통해 회원사에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파하고 신정책이나 규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폭스콘의 노동자 연쇄자살은 대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역상회 차원은 물론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활발히 후속대책을 세우고 있다.

기타 주요 한국상회 활동 소개

이 부분에서는 상하이 한국상회의 활동 중 위에서 언급한 공통 기능 이외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기업 및 교민의 중국진출 특징과 관련이 있다. 첫째, 상하이 한국상회는 비즈니스 사건사고 SOS 솔루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주요 특징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과 달리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중국에 진출하였다는 것이다.⁷⁾ 하지만 중국제도에 대한 무지, 오해 및 중국 측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진출 20년 동안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자 파트너의 협박, 수출입 통관상 위법, 노사갈등, 횡령과 도난, 각종 투서, 기관의 과도한 처벌 등은 대처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곤란을 주어 왔다. 이에 따라 상하이 한국상회는 SOS솔루션 팀을 조직해 매달 1회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문위원단을 조직해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상하이 한국상회 기능으로 기업과 학생 간 구인구직 활동지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상하이에는 화동지역 한국유학생, 한국회사에 취직을 원하는 조선족 및 중국인 구직자(특히, 화동지역 중국대학의 한국어과 취업준비 학생들)가 많이 있다. 또한, 한국내 많은 수의 대학들이 단기 국제인턴십을 상하이 한국상회에 요청하고 있다. 상하이 한국상회는 이들 구직자들을 화동지역 한국기업들에게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 매월 구인구직 행사를 한인회에서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상하이 한국상회는 상하이 총영사관과 함께 화동지역 한국 중고등학교 유학생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로 총영사관(15명), 한국상회 임원 및 기업체 임원(15명), 종교계/교육계(20명) 등 50여 명이 후원회 회원으로서 일대일 멘토/멘티 활동을 하고 있다.

7) 미국이나 유럽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할 경우 대개 중소기업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멕시코나 동유럽으로 진출한다

■ 맺음말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는 외자가 큰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자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기업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창구로서의 외국상회는 주목할 만하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별적 영향력이 커서 직접 지역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상회 조직의 발전에 대한 요구 및 기대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상회들은 상이한 역사 및 발전과정 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크게 대외활동과 대내활동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중국의 사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회원사 이익의 대변 창구로서의 이들의 역할 및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문화적·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대기업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다양하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이들을 바탕으로 조직된 한국상회는 여타 외국상회와 차이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국상회는 좀 더 체계적인 자료조사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여타 외국상회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활동을 면밀히 조사해 선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